

중국어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 및 기능 연구*

김보라**

【목 차】

1. 서론
 - 1) 문제 제기
 - 2) 선행연구
2. 중국어 지시 화행의 불손 유형
 - 1) 불손 지시 화행의 직접 유형
 - 2) 불손 지시 화행의 관습적 간접 유형
 - 3) 불손 지시 화행의 비관습적 간접 유형
3. 결론

【초록】

지시 화행은 체면 위협의 정도가 높은 화행 중 하나이다. 지시 화행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예의를 강조한 공손 표현,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표현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손 표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왔다. 본 연구는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을 단순히 화용적 실수에 의한 공손의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손 원리를 위배하여 효과적으로 지시를 전달하는 동시에 감정 표현 등 화용적 효과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어 지시 화행 중 불손 표현의 유형과 기능을 고찰하고, 화용 전략으로써의 불손 표현이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다양한 담화 속에서 교제 성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키워드】 지시 화행, 불손 표현, 화용 전략, 직접 화행, 간접 화행

* 본 논문은 2022년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학술대회에서 조언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김보라. 안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boradw@naver.com)

1. 서론

1) 문제 제기

외국어 교육에서 공손 표현은 의사소통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다.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의 반감을 사는 표현은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 국가의 문화와 언어 습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시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이후의 교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발화한 화행으로 체면 위협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행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유독 지시 화행은 상대의 체면 위협 정도를 낮추기 위한 공손 표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실제 언어 교육 현장에서도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예의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는 언어의 공손 표현이 오랜 시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자리 잡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툼, 시비 걸기, 짜증과 불만 표현은 물론 인터넷상의 비방 글과 폭력적인 댓글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어 소통은 실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공손하지 않으며 체면을 위협하는 표현도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손 표현과 함께 균형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시 화행은 앞서 언급했듯이 체면 위협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행으로 여겨진다. 공손 표현 연구에 활용된 예제의 상당 부분이 지시 화행인 점은 지시 화행의 체면 위협 가능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 (1) a. 借我点钱。돈 좀 빌려줘.
 a'. 能借我点钱吗?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b. 关下门! 문 닫아!
 b'. 能不能关下门? 문 닫아 줄 수 있어? (윤비취, 2017: 49)
- (2) a. 把这本书借给我。이 책 빌려줘.
 a'. 把这本书借给我吧。이 책 빌려줘라.
 b. 把窗帘拉上。커튼 쳐.
 b'. 帮我把窗帘拉上, 好吗? 커튼 쳐 줄래? (김현철·김민영, 2009: 248)

중국어 지시 화행 연구의 대부분은 직접 형태의 지시 표현과 일부 강한 어조의 지시 화행을 불손한 표현으로 간주하며 대화 상대의 체면을 지키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예 (1), (2)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직접 지시 화행(1a, 1b, 2a, 2b)보다 직접 지시 화행 뒤에 ‘……好吗?’, ‘……行吗?’, ‘……好不好?’ 등의 부가 의문 표지나, ‘能……吗?’, ‘可以……吗?’ 등 일반 의문 형태, 또는 청유·제안의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吧’를 더하여 전달하는 형식(1a', 1b', 2a', 2b') 이 화자의 의도를 더 공손하게 전달하는 예의 있는 표현에 해당하며, 그중 의문문 형태의 지시 화행을 대표적인 간접 지시 화행 유형으로 본다. 하지만 모든 간접 지시 화행이 공손의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3) a. 你还不快点跟莎姐道歉? (『转身说爱你』)

너 빨리 샤지에게 사과 안 해?

b. 你能安静点吗? 没看见我在复习功课呢? (『一又二分之一的夏天』)

조용히 좀 해줄래? 나 지금 복습하는 거 안 보여?

c. 婷婷, 你能不能不要说了? 你都已经唠叨一个早上了! (『一又二分之一的夏天』)

팅팅, 그만 좀 할 수 없어? 이미 아침 내내 떠들었잖아!

예(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간접 지시 화행이 공손 기능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체면 위협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3b)의 ‘能……吗?’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요청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¹⁾, 앞뒤 맥락 없이 문자적 표현만으로는 불손한 표현인지 알 수 없으나 뒤의 맥락을 봤을 때 공손한 의도로 발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시 화행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给我VP’, ‘少VP’, ‘不准V’ 등 구조 역시 전형적인 체면 위협의 기능을 하는 불손 표현이지만, 이미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화자의 의도에 맞추어 선택한 전략으로 보는 것이 옳다²⁾.

본고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은 원만한 교제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화자의 입장에서 지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 외 부가적인 정보 전달하기 위한 화용적 전략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외에 부가 의문문 형식이나 일반의문문 형식이 지시 화행의 공손 표현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손 표현에도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손 표

1) 김현철·김민영(2009), 윤비취(2017) 참고.

2) 지시 화행의 표현 형식 선택에 관하여 金宝兰(2017)에서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지시 화행의 최종 발화 형태는 일련의 인지 과정을 거쳐 선택된 화용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상세 내용은 金宝兰(2017) 참고.

현과 불손 표현에서 사용되는 의문 형식의 차이점, 더 나아가 불손 지시 화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유형과 기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실수에 의한 불손 표현이 아닌 화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발화한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수집한 말뭉치³⁾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표현을 정리하고 그 화용적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화행의 공손 표현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에 반해 불손⁴⁾ 표현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길지 않다. Lachenicht(1980)는 현재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언어적 무례/불손’이라는 표현 대신 ‘악화하는 언어(aggravating language)’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어적 불손 전략을 제시했다. ‘악화하는 언어’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청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하였다.⁵⁾ 이성범(2015)은 이 연구가 언어적 무례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지만 무례한 언어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기본 가설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언어 무례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Culpeper(1996)와 Bousfield(2008)의 무례 전략으로 이어졌다. 이 중 무례 전략 연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Culpeper는 Brown & Levinson의 공손 전략을 대부분 대칭적으로 전환하여 아래의 다섯 가지 무례 전략을 세웠다.

- i. 명시적 무례 전략: 화자의 공격적인 의도를 화행에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전략
- ii. 적극적 무례 전략: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적극적 체면을 손상하는 전략
- iii. 소극적 무례 전략: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는 전략
- iv. 암시적 무례 전략: 겉으로는 공손한 듯하나 암시적으로 공격적 의도를 드러내는 전략
- v. 공손 보류 무례 전략: 공손을 표해야 하는 상황에 공손을 위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무례함을 드러내는 전략

3) 본문의 말뭉치는 중국 드라마, 소설 속 대사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드라마와 소설은 화행의 앞뒤 맥락을 알 수 있어 청자의 유추가 필요한 간접 지시 화행을 의미와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수집하기에 적합하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예문은 원어민(중국인)의 실제 담화 속 지시 화행을 수집한 것임을 밝힌다.

4) 선행연구 중 ‘불손’, ‘무례’, ‘공격적 발화’, ‘비공손’ 등의 다양한 술어를 사용하였으나, 본문은 ‘공손한 표현/예의 있는 표현’의 반대 개념으로 ‘불손’이라는 술어를 사용함을 밝힌다.

5) 이성범, 언어적 무례함에 대한 실험화용적 연구-공격성 발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p.51-55. 재인용.

Culpeper의 무례 전략은 이후 언어 무례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김태나(2011)과 이성범(2015)은 이 전략이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담화를 적용한 설명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언어별 사회와 문화 배경의 차이가 있어 영어를 기준 언어로 삼은 Culpeper의 무례 전략은 다양한 언어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국 내에서의 언어적 불손에 관한 연구도 공손 표현과 비교하여 아직은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李元胜(2006)은 순응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어의 불손 화행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중국어 불손 유형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다. 张大毛(2009)는 ‘의식형’과 ‘비 의식형’, ‘전략형’과 ‘비 전략형’을 바탕으로 언어적 불손 유형을 분류했으나 세부 분류의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 이 외에 谢世坚(2009)과 牛一琳(2018)는 영어, 牛利·罗耀华(2015)와 黄旭林(2016)는 중국어를 대상으로 특정 직업 환경 내 혹은 기타 제한적 환경 내에서의 언어적 무례 표현을 분석했다. 周锦良(2014)은 중국어 ‘중첩 구조(叠连)’의 불손 기능을 분석했다. 온전히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이론 연구 또는 ‘少VP’나 ‘给我VP’와 같은 특정 구조만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국내의 불손 표현 연구는 주로 영어나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영어를 대상으로 한 대표 연구는 이성범(2015, 2018)이 있으며,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대표 연구는 김태나(2011,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현재 국내의 중국어 불손 표현에 관한 연구는 오현주(2017)의 연구만 찾아볼 수 있다. 오현주(2017)는 외국인이 중국어를 사용할 때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용적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중국어의 전 화행을 대상으로 ‘공손 표현 미사용’, ‘지시 불손 표지 少와 给我的 사용’, ‘반어문 사용’, ‘단어 반복’ 네 가지의 중국어 불손 표현 형식을 분석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격적이고 불손한 표현은 화용적 실수로만 발생하지 않으며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체면 위협이 큰 지시 화행을 모두 공손 표현으로 바꾸어 발화할 수 없다. 의사소통하는 양측의 지위와 관계, 상황적 필요, 구체적인 지시 의도에 따라 불손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현재 중국어 전체 화행에 대한 공손 표현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은 공손의 실패로서만 자주 언급될 뿐 자체의 화용적 기능과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모범적인 의사소통 모델 외에 실제 언어 교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손한 표현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 외에 일반적으로 중국어 입문과 초급 학습자는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과 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손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어 고급 단계로 갈수록 원어민과의 소통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불손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손 표현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 지시 화행은 기타 화행보다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고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비록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이 주류의 표현 방식은 아니지만, 중국어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 유형과 그 기능을 밝히는 것도 중국인과의 정확한 소통과 이해에 작지만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중국어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

언어적 불손 표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Culpeper(1996)의 무례 전략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영어를 대상으로 하며 지시 화행뿐만 아니라 언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행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Culpeper의 무례 전략을 그대로 중국어 지시 화행 속 불손 표현 분석에만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불손 표현이 하나의 무례 전략과 일대일 대응하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분류가 어렵다. 본문은 지시 화행에 더욱 적합한 분류를 하기 위해 Blum-Kulka(1989)의 요청 화행 직접성에 따른 세 가지 분류⁶⁾를 참고하여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을 크게 직접형, 관습적 간접형, 비관습적 간접형 총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1) 불손 지시 화행의 직접 유형

직접형 지시 화행은 표면적으로 화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문자적 의미 외에 다른 연외적 의미가 없어 추가적인 화용적 추론이 필요하지 않은 유형을 말한

6) Blum-Kulka(1989)는 요청 화행을 간접성에 따라 크게 직접적 책략(The most direct strategy), 관습적인 간접 책략(The 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y), 비관습적 간접 책략(The nonconventional indirect strategy)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분류는 많은 연구에서 요청 화행의 전략을 연구할 때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요청 화행의 상위 개념인 지시 화행의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간접 형식의 지시 화행, 특히 그 중 비관습적 지시 화행은 정형화된 문장 구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와 의미로 분류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는 Blum-Kulka의 요청 화행 전달 전략 분류 방식을 택하여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다. 직접형 불손 지시 화행은 명시적으로 지시 의도를 전하는 것 외에도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격적인 태도가 화행에 직접 드러나 있다. 일반적으로 현상에 대한 불만과 문제를 빠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한다.

(1) 공손 표지 미사용

지시 화행은 기본적으로 청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으로 여겨진다. 교제 쌍방의 지위와 친밀도 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화자에게 이익이 되는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지시의 어기를 부드럽고 공손하게 하기 위해 ‘请’, ‘麻烦(你)’, ‘帮我’ 등의 공손 표지를 사용한다. 오현주(2017)는 공손 표현의 사용 여부만으로 공손과 불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공손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불손의 잠재성이 있다고 하였다.

- (4) a. 去! 五十圈! (『一又二分之一的夏天』)
가(뛰어)! 오십 바퀴!
b. 看车! (『三十而已』)
앞에 차 봐! (운전하는 도중 한눈을 판 상대방에게)
c. 别动我!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나 건드리지 마!

예(4)는 동사의 원형만을 사용한 경우로, 화자는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지시를 전달한다. 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거절의 여지를 두지 않고 상대의 체면을 위협함으로써 지시와 더불어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불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5)처럼 고의로 부정적 의미가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발화함으로써 지시와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 (5) a. 别说话了。(말하지마) → 你闭嘴。(닥쳐)
b. 别打扰我。(귀찮게 하지마) → 滚!/ 去死!(꺼져)

이때 예(6)처럼 이미 부정적 의미가 있는 단어를 택하여 발화한 화행에 공손 표지나 어기를 약화하는 어기 조사를 사용해도 불손의 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비꼬는 느낌을 줄 수 있다.

- (6) a. 请你闭嘴，滚出我的商店！ (『作文大全』)

입 닥치고, 내 가게에서 꺼져!

- b. 算了，闭上嘴走路吧。 (『解忧杂货点』)

됐어, 입 닥치고 가.

(2) 명령/금지 표지 사용

중국어 지시 화행에서 ‘一定要/千万要/给我’ 등의 강조 표지를 자주 사용하는데⁷⁾, 그 중 ‘给我’는 특별한 의미로 번역되지는 않지만, 명령어기의 강조와 지시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화자 자신이 청자보다 상황상 권위와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데, 예(7)처럼 화자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동시에 청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불손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7) a. 通通都出去。 → 通通都给我出去! (『致我们单纯的小美好』)

전부 나가!

- b. 你扫八个月的厕所。 → 你给我扫八个月的厕所!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너 8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해!

- c. 站住。 → 给我站住! (『欢乐颂3』)

거기 서!

또한 예(8)처럼 ‘快’, ‘赶紧’, ‘赶快’ 등 재촉의 의미가 있는 부사나 ‘必须’등 필요성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사용하여 청자를 더욱 압박하고 부담을 주는 동시에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 (8) a. 快给我滚开! (『网易视频』)

썩 꺼져!

- b. 赶紧给我回来!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빨리 돌아와!

- c. 必须给我好好排练!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리허설 잘해야 해!

‘少+VP’ 형식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로 원래 정해진 수량보다 조금 적은 양을 요청하거나 권할 때 사용한다(少₁: 少放盐, 少穿点衣服 등). 이 경우는 불손

7) 袁毓林(1998) p.17 참고.

의 의미는 없는 단순한 요청이나 제안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상대의 행위를 저지하고 심지어 질책의 의미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少₂). 이때 주로 부정적 의미의 단어와 결합하거나 명백하게 제지의 의도를 드러내는 동사(구)와 함께 사용한다. 불손 표현인 少₂은 단순 요청 표현 少₁ 보다 비꼼, 비난, 불만 등의 어기를 강하게 띄며,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발음한다. 예(9)처럼 ‘少₂+VP’ 형식은 ‘给我’와 마찬가지로 강한 제재를 가해 상대의 체면을 훼손하며 동시에 질책과 비난은 물론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도 한다.

- (9) a. 多嘴! 别人家的事你少管! (『解忧杂货店』)
말 참 많네! 남의 일에 적당히 참견해!
- b. 管你们是什么意思, 少恶心了。 (『夏至未至』)
너희 뜻이 무슨 뜻이든 간에, 적당히 짜증 나게 해라.
- c. 你的衣服我会赔给你的, 少装得一副楚楚可怜的样子了。 (『夏至未至』)
네 옷은 내가 배상할 거야, 불쌍한 척 좀 적당히 해.

(3) 기타 상용 직접 지시 화행 구조

‘让(/叫)你X就X’구조는 이미 한 번 이상 지시 화행을 발화했으나 청자가 모종의 이유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화자가 재차 발화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 유형은 청자에게 ‘X 하라면 X 해라!’라는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청자의 현재 행위를 제지하는 기능도 한다. 즉, ‘현재 행동을 멈추고 내가 내리는 지시를 따라라’라는 의미이며,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강압적인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10) a. 让你去你就去, 哪那么多废话! (『一又二分之一的夏天』)
가라면 갈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 b. 你到底要跟我赌气到什么时候啊? 让你去吃饭就去吃饭嘛!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너 도대체 나한테 언제까지 빠져 있을 건데? 밥 먹으라면 먹을 것이지!
- c. 叫你拖你就拖, 哪儿那么多废话啊! (『夏至未至』)
뺏으라면 뺏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예(10a)의 청자는 ‘가라’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평하고, 예(10b)의 청자는 ‘밥 먹으러 가라’라는 말을 이행하지 않고 불평하자 화자가 재차 지시를 내린 상황이며, 예(10c)는 청자가 청소하라는 화자의 말을 이행하지 않고 떠들자 재차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본래의 지시와 더불어 청자의 1차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불쾌감과 질책 혹은 비난의 어감을 동시에 전달함으로써 지시의 강제성을 높이는 표현이다.

‘V你的(NP)’ 구조는 기본적으로 ‘네가 (해야 할)NP를 해라’의 의미로 ‘忙你的(事)吧。(네 일 봐/하던 일 해)’, ‘说你的吧。(네가 할 말 해)’ 등 불손의 의미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불손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하는데, 첫째는 청자가 ‘V+N’에 해당하는 행위를 마땅히 이행해야 하나 아직 이행하지 않았든 중도에 멈추었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된다. 예(11a~c)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느끼기에 청자의 현재 행위가 자신에게 방해되어 귀찮음, 불쾌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의 현재 행위를 제지하는 동시에 ‘(방해하지 말고) 네 하려던 일을 해라’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는 화자가 실제로 청자에게 ‘V+N’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11d)처럼 단지 현재 행동을 그치게 하려 할 때 사용한다. 불손 표현으로 사용하는 ‘V你的(NP)’는 화자 자신의 것(일)과 청자의 것(일)을 분리함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직접 드러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쾌함, 짜증 등의 감정 표현을 강한 어기로 표현하며 지시의 기능을 한다.

(11) a. 看你的书吧, 这儿没有你的事。 (『百度』)

네 책이나 봐, 여기 네 일 없으니까.

b. 你回去上你的课, 不要管我。 (『百度』)

네 수업이나 가,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c. 哎呀! 你问得太多了! 吃你的红高粱饼子吧! (『黄油烙饼』)

아이! 너 질문이 너무 많아! 네 빨간 수수떡이나 먹어!

d. 滚你的吧, 该死的东西! (『百度』)

꺼져, 망할 놈아!

2) 불손 지시 화행의 관습적 간접 유형

관습적 간접형은 지시 화행을 전형적인 지시 화행의 구조가 아닌 다른 화행의 구조를 사용하여 발화한 것을 말하는데, 본래 표면적으로는 지시 의도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반복 사용으로 인해 관습화되어 깊은 화용적 추론이 없이도 내포된 지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형식으로 발화된 지시 화행을 말한다.

(1) 시비(是非)/정반(正反) 의문문

시비 의문문과 정반 의문문은 지시 화행의 대표적인 공손 표현 방법의 하나다. 주로 능원동사 ‘能/可以’를 사용한 의문문으로, 상대방이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완곡한 지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能/可以’에 뒤이어 부정 부사 ‘不’, ‘别’등을 사용하여 화자의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시를 내리는 불손 표현으로 사용한다.

- (12) a. 你能别恶心我了吗?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나 좀 짜증 나게 하지 말아 줄래?
b. 我若喝下这可怕的东西, 你能别再烦我吗? (『BCC』)
내가 이 끔찍한 걸 마시면, 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 줄래?
c. 你插队了, 可以不要插队吗?
당신 새치기했어요. 새치기하지 말아 줄래요?
- (13) a. 你能不能别形容得我们好像同居了一样? (『致我们单纯的小美好』)
우리가 동거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 줄래?
b. 婷婷, 你能不能不要说了! 你已经唠叨一个早上了。 (『一又二分之一的夏天』)
婷婷, 말 좀 그만해 줄래? 이미 아침 내내 떠들었다고.
c. 钟晓芹, 你能不能不一惊一乍的啊? (『三十而已』)
钟晓芹, 호들갑 좀 그만 떨 수 없어?

예(12)는 시비 의문문, 예(13)은 정반 의문문 형태로, 겉으로는 완곡하게 지시를 전달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의문문 형식의 지시 화행보다 발화시 강한 어기를 띄며 부정 부사 뒤에는 보통 부정적 의미의 동사나 동사구가 나온다. 이는 화자가 청자의 행위에 상당한 반감이 있음을 드러내고, 그 행위를 그치기를 요구할 때 주로 사용한다. 우리말로 ‘제발 좀 그만할래?’, ‘제발 철 좀 들래?’ 등과 같은 표현처럼 의문문의 본래 어감과 실제 의미의 괴리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어 청자를 압박하는 불손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14) a. 烦不烦啊? 恶心死了。 (『致我们单纯的小美好』)
귀찮게 하지마(혼자 놀아)! 더러워 죽겠네.
b. 你安静点, 行不行啊! (『一又二分之一的夏天』)
조용히 좀 하면 안 되겠니!
c. 我很烦, 你知不知道! (『一又二分之一的夏天』)

짜증 난다고, 알아 몰라!

이 외에도 정반(正反) 형식 ‘行不行啊?’, ‘烦不烦啊?’, ‘知不知道?’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단순한 의문을 나타내지만, 예(14)에서는 상대를 질책하고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불손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단순 의문을 나타낼 때와는 다르게 강한 어조가 특징이며 실제로 상대방이 괜찮은지, 번거롭지는 않은 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상대의 행위를 제지하고 동시에 불쾌함, 귀찮음, 짜증 등의 감정도 드러낼 수 있다.

(2) 반어문

반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으로 반어문은 ‘상대편이 틀린 점을 깨치도록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는 질문을 하여 진리로 이끄는 변증법’이라고 정의한다⁸⁾. 사전적 의미에 근거하여 볼 때 반어법을 사용하지 화행은 상대의 행위가 틀렸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옳은 방향으로 행위를 고치길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시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고 해도 상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풍자, 비꼼, 질책의 어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불손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 반어문은 언어적 의미와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의 대비 효과로 평서문보다 강한 어기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V+什么+(V/N)’의 의문사 ‘什么’는 실제로 ‘무엇’을 묻는 의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반어의 역할을 한다. 예(15a)와 (15b)처럼 ‘什么’의 앞뒤로 같은 동사를 반복하여 ‘(동사)하긴 뭘 (동사)해!’의 의미를 나타내며 뒤의 동사는 생략하여 ‘到处看什么’, ‘还问什么’의 형태로 쓰기도 한다. 이 구조는 반어의 형식을 사용하여 청자의 현재 행위에 불만이 있음을 드러내고, 청자를 꾸짖어 그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청자의 의견에 대한 무시가 될 수 있어 체면 훼손의 위험성이 높은 불손 표현이다. 이 구조는 의문사 앞뒤로 같은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예(15c)와 (15d)처럼 이합 동사 또는 기타 두 음절 동사를 한 글자씩 나누어 ‘V+什么+N’의 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합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은 문법상 틀렸다고 할 수 있으나, ‘V+什么+V’ 구조를 응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5) a. 喂, 说你呢, 到处看什么看! (『夏至未至』)

이봐, 너 말이야, 여기저기 보긴 뭘 봐!

8)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 b. 都说了无可奉告了, 还问什么问啊! 你有病啊? (『夏至未至』)
이미 할 말 없다고 했잖아, 또 묻긴 뭘 물어! 너 제정신이니?
- c. 踏什么青, 赏什么花啊? (『亲爱的热爱的』)
봄나들이는 뭘 봄나들이, 꽃 구경은 뭘 꽃구경이야!
- d. 40度的高温, 旅什么游? 爬什么山? 徒什么步? 自什么驾? 逛什么街?
出什么门? (『小红书』)
40도의 고온에, 여행은 뭘 여행, 등산은 뭘 등산, 걷기는 뭘 걷기, 드라이브
는 뭘 드라이브, 쇼핑은 뭘 쇼핑, 외출은 뭘 외출이야!

‘怎么还+不(没)VP’ 구조는 주로 청자의 현재 상태가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 위의 ‘什么’와 같이 예(16)의 ‘怎么’는 실제 ‘어째서’, ‘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닌, ‘리허설 해야 한다(예16a)’, ‘마땅히 도착해야 한다(예16b-c)’는 이상적인 상황에 이르지 못했음을 질책하고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를 재촉하는 지시 화행이다. ‘怎么’를 생략하여 예(17)의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 (16) a. 怎么还不排练? (『一又二分之一的夏天』)
어째서 아직도 리허설을 하지 않는 거야?
- b. 你怎么还不来啊?
너 어째서 아직도 오지 않는 거야?
- c. 李刚, 三十分钟了, 你怎么还没到?
李刚, 30분 지났어, 어째서 아직도 도착하지 않는 거야?
- (17) a. 还不快走? (『余生, 请多指教』)
빨리 안가?
- b. 你还不快点跟莎姐道歉? (『转身说爱你』)
너莎姐한테 빨리 사과 안 해?

중국어 반어문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难道……吗?’ 역시 지시 화행에서 종종 사용한다. ‘难道……吗?’ 반어문이 본래 불손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화자가 청자의 현재 행동이 못마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 불만이 있을 때 사용하며, 어감상 화자의 불만, 어이없음 등의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청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지시할 때 사용한다.

- (18) a. 马上就要期末考试了, 难道你们不要复习吗? (『一又二分之一的夏天』)
곧 기말고사인데, 설마 너희 복습 안 하려는 거야?

- b. 你难道没有什么事想向我坦白吗? (『一又二分之一的夏天』)
 설마 나한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 (19) a. 喂! 不是叫你不要乱说么? (『BCC』)
 이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 b. 我不是让你买肉色的吗?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내가 너한테 살구색 사 오라고 하지 않았니?

예(18a)의 ‘难道你们不要复习吗?’는 화자가 청자의 현재 행동에 불만이 있어 비꼼의 방식으로 ‘복습해라’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예(18b)의 화자와 청자는 친밀한 사이인데 청자가 화자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자 화자가 섭섭함을 느껴 반어형식을 통해 지시하고 있다. 예(19)의 ‘不是……吗?’의 형식도 지시 화행에서 종종 사용하는 반어문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이미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재차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며, 지시 전달과 동시에 불만 전달과 질책 등의 기능도 한다.

3) 불손 지시 화행의 비관습적 간접 유형

비관습적 간접형은 관습적 간접형과 마찬가지로 지시 화행을 전형적인 지시 화행의 구조가 아닌 다른 화행의 구조로 발화한 것을 말하며, 표면적 의미에 지시 의도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고 형식도 관습화되지 않아 화용적 추론이 있어야만 내포된 지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명령문, 청유문의 구조가 아닌 의문문 또는 평서문의 형식으로 발화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비관습적 간접 유형은 유형화된 지시 화행 구조가 아닌 교제 당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한 다양한 화행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청자는 문자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수단, 즉 화자의 표정과 몸짓, 음색, 억양 등과 상황 맥락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 지시 화행의 비관습적 간접 유형을 모두 불손 표현이라 할 수 없지만, 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시 이행에 대한 부담 외에도 상대의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 과도한 추론 과정이 필요한 비관습적 유형은 불손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 부정적 정보 전달하기

이 유형에서 말하는 부정적 정보란 화자의 청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화자가

생각하는 청자의 단점 혹은 잘못된 점 등을 말한다. 화자가 상대의 행동에 불만이 있어 행동을 제지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할 때 명시적으로 지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부정적 정보만 전달함으로써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을 사용하는 화자는 지시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청자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강한 어기와 부정적 의미의 어휘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자와의 이상적인 관계 형성에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화자의 입장에서 강한 감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에 적합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20) a. 你都已经唠叨一个早上了, 头都快要炸了。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너 이미 아침 내내 떠들었다고, 머리가 곧 터질 거 같아.

b. 废话真多! (『转身说爱你』)

쓸데없는 말 진짜 많네!

c. 你跟我吼什么啊? (『三十而已』)

나한테 소리는 왜 지르는 거야?

예(20)의 공통적인 교제 배경은 화자가 청자의 반복된 어떤 행동에 화가 났으며 그 행동을 멈추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등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닌 ‘잔소리해서 머리 아프다’, ‘쓸데없는 말이 많다’, ‘왜 소리 지르냐’ 등의 말로 상대를 타박해 불편한 감정을 전달하고 동시에 청자가 스스로 상황을 깨닫고 행동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 빈정거리기

빈정거리기 전략은 부정적 감정 전달하기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불편한 감정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것으로 비꼬기, 이죽거리기와 비슷하다. 표면적으로는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현재 상황을 비꼬아 불만과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보통 간접 지시 메시지와 더불어 비꼬는 어기와 강한 억양, 불쾌한 표정 등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불편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21) a. 人呢? 人呢?

사람은? 사람은 어디 있는데(왜 안 와)?

b. 你有时间作弊, 还不如好好复习功课呢!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너 커닝할 시간에 차라리 복습하는 게 낫겠다!

예(21a)은 화자와 청자가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청자는 시간이 한참 흘러도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화자에게 전화를 걸자 화자가 청자에게 한 말이다. 도착해야 할 상대가 오지 않고 전화만 걸자 ‘사람은?’ 하며 빈정거리고 있다. ‘人呢?’는 일반적으로 제삼자의 행방을 물을 때 사용하며 이때는 단순히 의문의 어기만을 댄다. 하지만 ‘왜 오지 않고 전화만 하느냐, 빨리 와라’의 의미로 발화된 예(21a)는 강한 억양과 질책의 어기를 띄며, 두 번 반복하여 발화함으로써 빈정거리기의 어기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21b)는 시험 직전 청자가 커닝페이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커닝할 시간이 있으면 그럴 시간에 복습해라!’라며 빈정거리며 청자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빈정대며 면박을 주는 방법은 단순히 화자의 불편한 감정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청자의 감정도 상하게 할 수 있는 불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화자는 불쾌한 감정을 청자에게 전이시키고 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지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협박하기

협박하기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이다. 이 행위의 최종목적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주로 가정문의 형태로 발화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자가 본래 지시하고자 하는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를 언급하고 그다음 청자가 그 행위를 한다면 화자가 취할 조치를 언급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화자의 본래 의도가 청자가 ‘A’라는 행동을 하길 원한다면(/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A 하지 않으면(/A 하면), (나는)B라는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발화하는 방식이다.

(22) a. 先生, 你这样是违反法律的, 你再不停止的话, 我就要报警了。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법률 위반입니다. 멈추지 않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b. 你再也不放手, 我可报警了! (『一又二分之一的夏天』)

또 손 안 놓으면 신고할거야!

c. 再过来, 我喊人了! (『致我们单纯的小美好』)

더 다가오면 사람 부를 거야!

예(22a)은 청자가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고, (22b)는 청자가 술에 취해 화

자를 괴롭히는 상황이다. 이 두 예문의 화자는 청자의 행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거나 신변의 위협을 받아 정중하고 차분한 요청보다는 강하고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지시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래서 청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报警’이라는 후속 조치를 언급함으로써 청자의 빠른 지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22c)는 동네 건달이 괴롭히자 화자가 ‘더 다가오면 사람을 부를 것’이라 강하게 말함으로써 청자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표현이다. 비록 청자의 행위가 옳지 않지만, 상대를 위협하고 상대방의 자유에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체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이다. 반대로 이 전략은 화자 본인의 자유와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상대를 제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지시 화행을 사용한 의사소통은 쌍방의 관계,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이익 관계 등에 따라 공손 표현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공손한 표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서적 갈등을 줄이기보다는 불손 표현을 사용하여 오히려 상대와 거리를 벌리고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지시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지시 화행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다른 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면 위협 문제가 커 고려할 조건이 많다. 그렇기에 중국어 교육에서 지시 화행에 대한 적절한 전략 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학습하다 보면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화용적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이 또한 불손 표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시의 강제성을 높이고 언어 외적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 전략으로써 불손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언어 환경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수에 의한 불손 표현이 아닌 전략적으로 사용한 지시 화행의 불손 유형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지시 화행의 전략적 불손 표현은 청자에 대한 적대감, 불신, 불쾌감 등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제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지시 화행보다 강한 어기를 띤다. 전략적인 중국어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 유형과 기능을 살펴보았지만, 교제 쌍방의 관계, 지위, 교제 환경 등 다양한 화용적 관점에서 깊은 분석은 하지 못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지시 화행의 불손 표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더 깊이 고찰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성범, 『언어적 무례함에 대한 실험화용적 연구 - 공격성 발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袁毓林, 『现代汉语祈使句研究』, 北京大学出版社, 1993.
-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orwood: N.J. Ablex, 1989.
- Bousfield, D., *Impoliteness in Intera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2008.
- Brown, P. & Levinson, S.C.,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 김태나, 「한국어에서의 불손 실현 - Brown과 Levinson(1987)의 불손전략을 바탕으로」, 『외국어교육』, 3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1.
- _____, 「한국어 발화에서의 무례(無禮)연구 - 무례 유형과 서양의 무례(Impoliteness) 유형 비교-」, 『한국어 교육』,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
- _____, 「무례/불손의 회피 방법을 활용한 교수 방안 -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4.
- 김현철·김민영, 「현대중국어 완곡 표현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58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 윤비취, 「중국어 공손표현 기제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45호, 한국현대중국연구회, 2017.
- 이성범, 「낙태에 관한 인터넷 포럼에서의 플레이밍 현상: 대조화용론적 분석」, 『Language Research』, 3호, 한국언어학회, 2018.
- 오현주, 「중국어 불손 표현 연구」, 『중국어문학』, 74호, 영남중국어문학회, 2017.
- 黄旭林, 「汉语电视剧中不礼貌言语的语用研究」, 『襄阳职业技术学院学报』, 第4期, 2016.
- 金宝兰, 「指令言语行为表达形式的选择机制」, 『중국어학』, 제59집, 대한중국어학회, 2017.
- 李元胜, 「汉语中不礼貌言语行为的顺应性研究」, 『现代语文』, 第11期, 2006.
- 牛·利·罗耀华, 「机构性不礼貌话语积极语用功能探究」,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2015.
- 牛一林, 「不礼貌指令性言语行为在商务场景中的应用及功能研究」, 『焦作大学学报』, 第3期, 2018.
- 谢世坚, 「语言非礼貌现象及非礼貌理论的完善」, 『广西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5期, 2009.
- 张大毛, 「不礼貌言语的界定和分类」, 『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科版)』, 第S1期, 2009.
- 周锦良, 「汉语交际中叠连式不礼貌话语浅议」, 『和田师范专科学校学报』, 第1期, 2014.
- Bousfield, D. & Culpeper, J., "Impoliteness: Eclecticism and Diaspora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edition",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Vol.4(2), 2008.
- Culpeper, J., "Towards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Vol.25(3), 199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指令言语行为, 不礼貌话语, 语用策略, 直接言语行为, 间接言语行为				
	영문	Directive speech acts, Impoliteness expression, Pragmatic strategy, Direct speech acts, Indirect speech acts				
<div><div>A Study of Impoliteness Expression and Function of Chinese Directive Speech Acts</div><div>Kim Bo-Ra</div><div><p>Directive speech acts is one of the speech acts with a high degree of face threat. Therefore, while most of the studies on directive speech acts are focused on polite expressions that emphasize politeness, and exemplary expressions that can be used in education, the studies on impoliteness expression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p><p>In this study, the impoliteness expressions of directive speech acts is not simply a failure of politeness due to pragmatic mistakes, but is a strategy to achieve useful effects such as effective directive delivery and emotional expression by intentionally violating the principle of politeness.</p><p>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types and functions of impoliteness expressions in Chinese- directive speech acts, and to find out the effect of impoliteness expressions on the success of companionship in various conversation beyond ideal communication as the strategy of speech act. And it is concer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be helpful in Chinese directive speech acts education.</p></div></div>						
저 자	김보라 / 金보라 / Kim Bo-Ra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2.08.	심 사 일	2023.03.10.	게재확정일	2023.03.20.